

Since 1981

A Leader of Cutting Tools



END MILL (Solid type) 부문 세계 1위

TAP (Solid type) 부문 세계 3위

DRILL (Solid type) 부문 세계 6위

세계적인 절삭공구 전문기업

본 자료의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기준의 영업실적입니다.

본 자료에 포함된 내용은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IR활동에서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(주)와이지-원(이하 "회사")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이의 반출, 복사 또는 타인에 대한 재 배포는 금지됨을 알려 드리는바입니다.

본 IR자료의 사용에 따른 활동은 위와 같은 제한 사항의 준수에 대한 동의로 간주될 것이며, 제한사항에 대한 위반은 관련 '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'에 대한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자료에 포함된 "예측정보"는 개별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보들입니다.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사항으로 회사의 향후 예상되는 경영현황 및 재무실적을 의미하고, 표현상으로는 '예상', '전망', '계획', '기대', '(E)' 등과 같은 단어를 포함합니다. 위 "예측정보"는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,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,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실제미래실적은 "예측정보"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당사의 IR자료에 표기된 사항 중 공정공시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 공시된 공정공시를 통하여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또한 미래의 경영목표와 같이 공정공시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당사의 경영목표 및 비전일 뿐 예측 및 전망 자료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며, 투자판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자료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 및 회사의 임원들은 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 (과실 및 기타의 경우 포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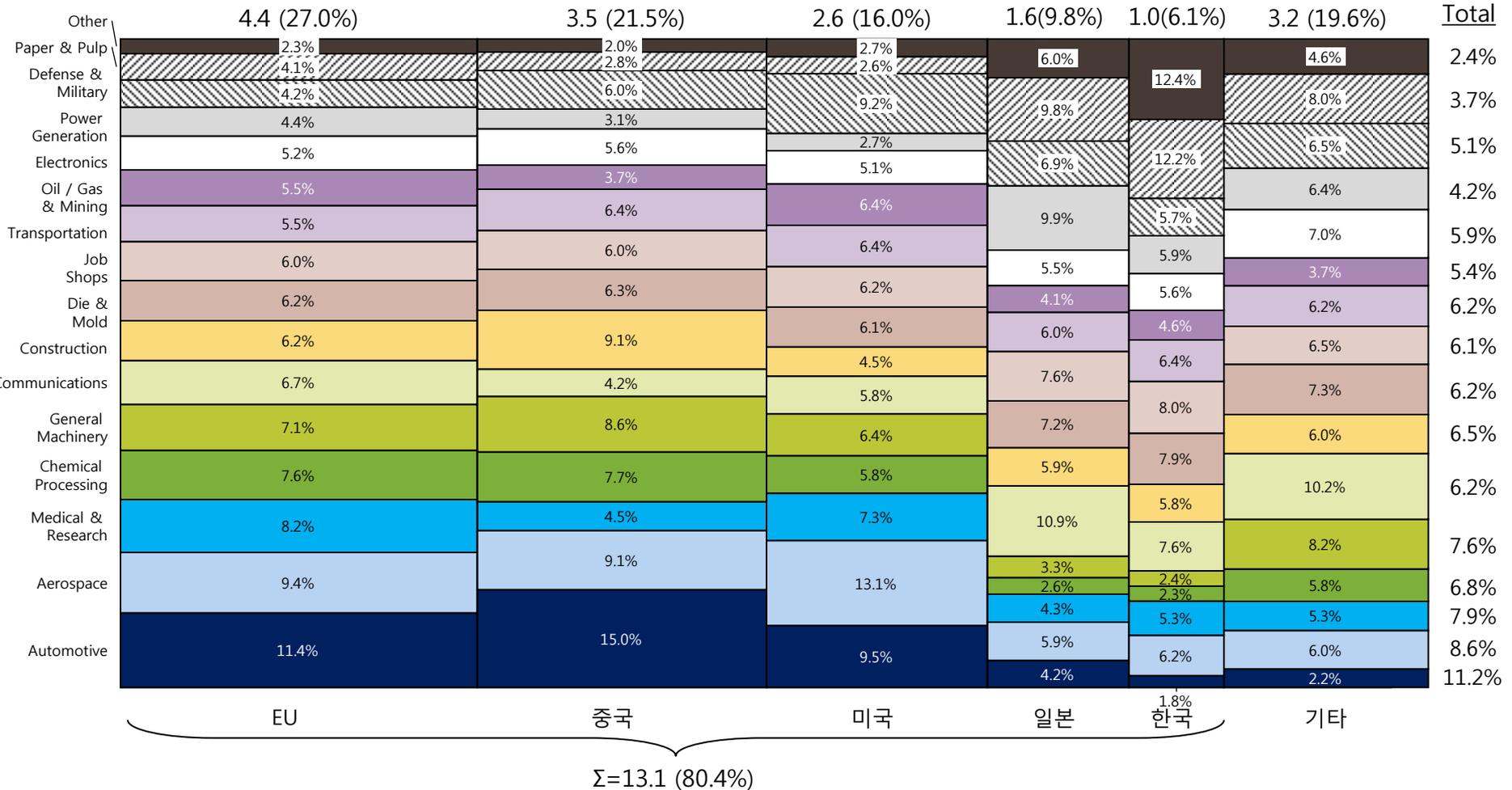
# Industry Overview(1)



절삭공구는 2차 산업 전체에 광범위하게 사용(자동차, 항공, 화학, 의료 순)되며,  
2차 산업이 발달한 5개 지역에서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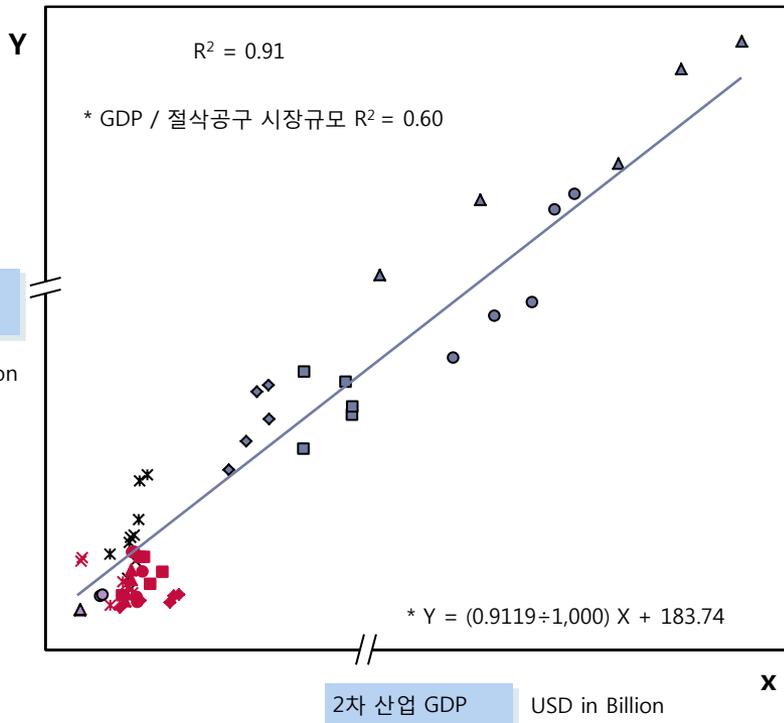
(단위: USD in Billion)

## 2013년 권역 x 전방 산업별 절삭공구 시장 규모 (Σ=16.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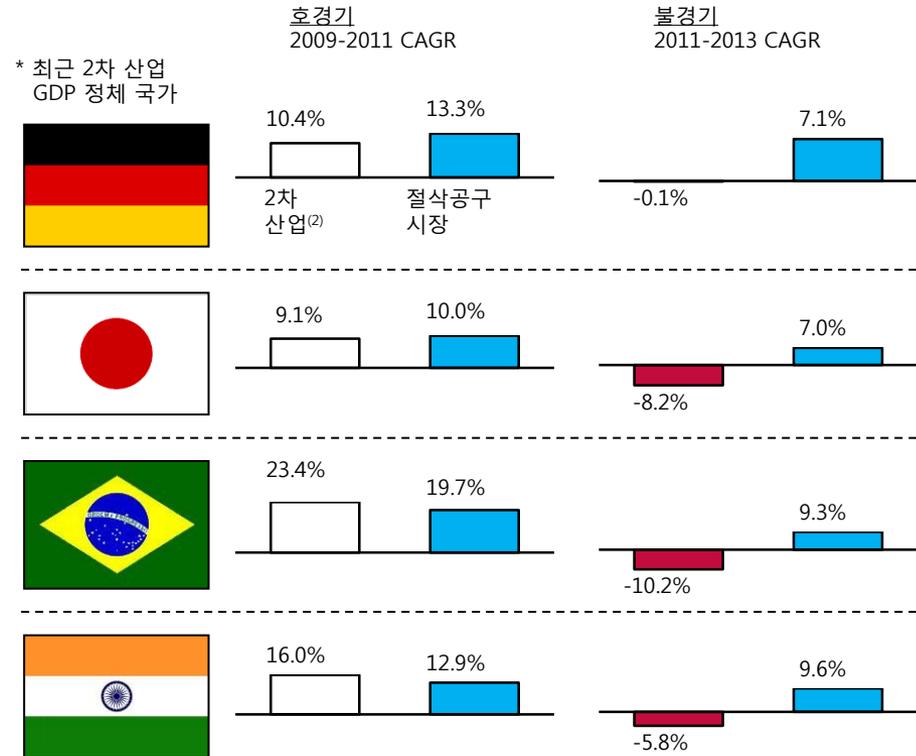


절삭공구 산업은 2차 산업의 기초산업으로 2차 산업 GDP 와 정비례하여 꾸준히 성장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, 경기하강 국면에서도 성장을 유지하여 왔을 정도로 견실한 성장 산업임

## 2차 산업 GDP<sup>(1)</sup> / 절삭공구 시장규모 상관관계



## 2차 산업 GDP 정체국가의 절삭공구 시장 성장성



- 절삭공구는 2차 산업의 가공 Process 의 기초가 되는 재료로 2차 산업규모에 비례하여 수요가 증가함

- 절삭공구 산업은 경기 민감도가 비교적 낮은 편으로, 경기침체 시에도 성장이 일정수준 유지되는 경향을 보임
  - 2차 산업 GDP 가 급감한 일부 국가들에서도 절삭공구 시장은 성장률이 감소하였을 뿐 성장하는 경향을 보임

# Company Overview(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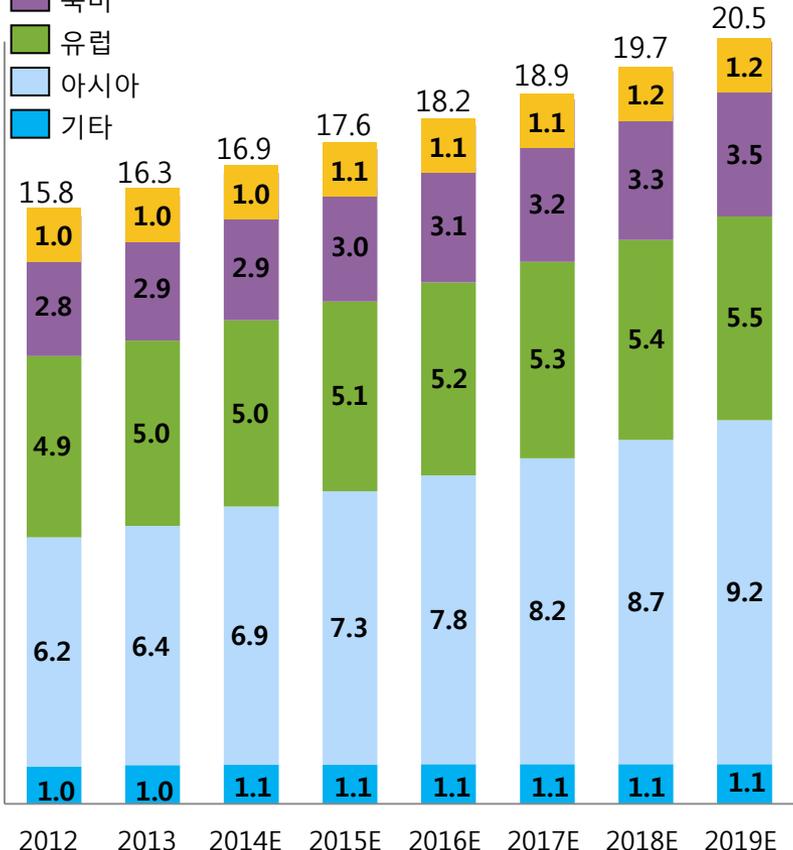


2차 산업 GDP 전망 및 주요 전방산업 성장전망 고려 시, 세계 절삭공구 시장은 2014년 17조원 수준에서 2019년 약 21조원 규모로 향후에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. 회사의 주요 판매국가의 향후 전망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좋음

## Global 절삭공구 시장규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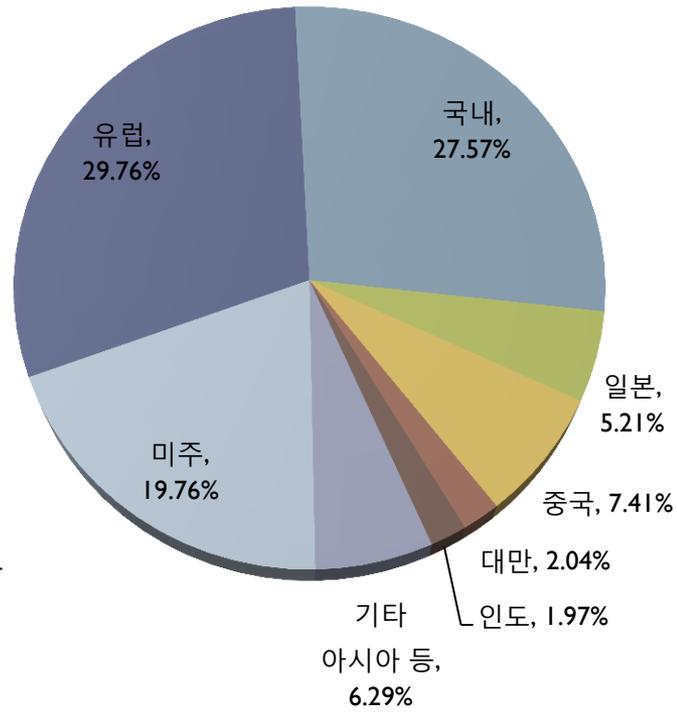
(단위: USD in Billion)

- 한국
- 북미
- 유럽
- 아시아
- 기타



	CAGR 2012~2014	CAGR 2014~2019
전세계	3.6%	3.9%
한국	3.1%	3.8%
북미	2.5%	3.3%
유럽	1.3%	1.8%
아시아	6.1%	5.9%
기타	2.5%	0.2%

## YG-1 개별 지역별 매출(FY 2017(E)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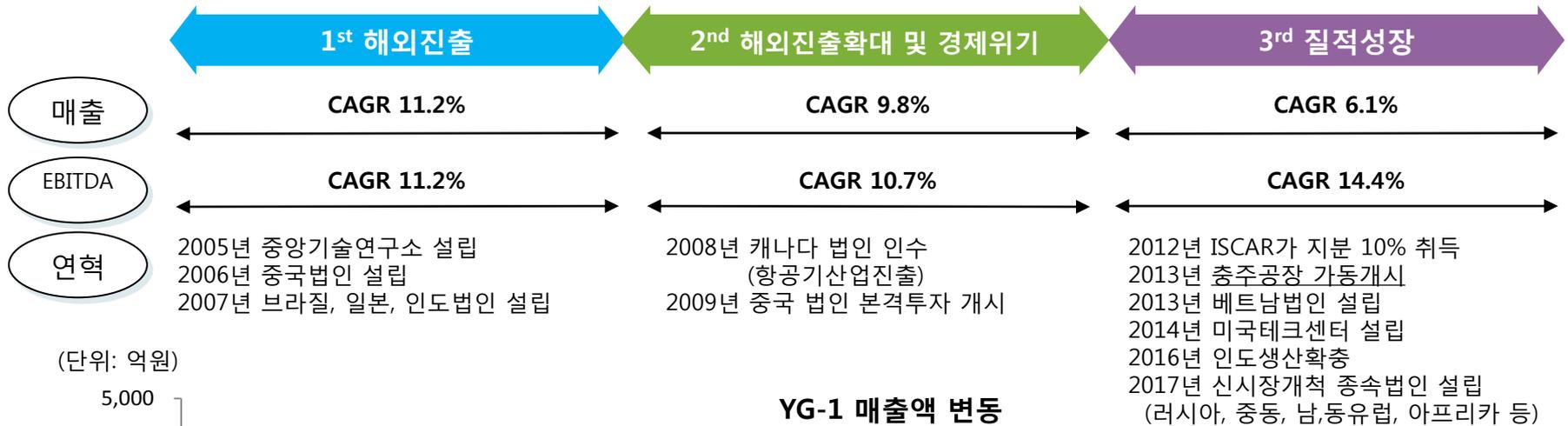
\*기타 아시아 : 오세아니아, 아프리카 포함

출처: DEDALUS Consulting Cutting Tools 2014, OECD, UN Stats, T-Plus Database, T-Plus 분석

# Company Overview(2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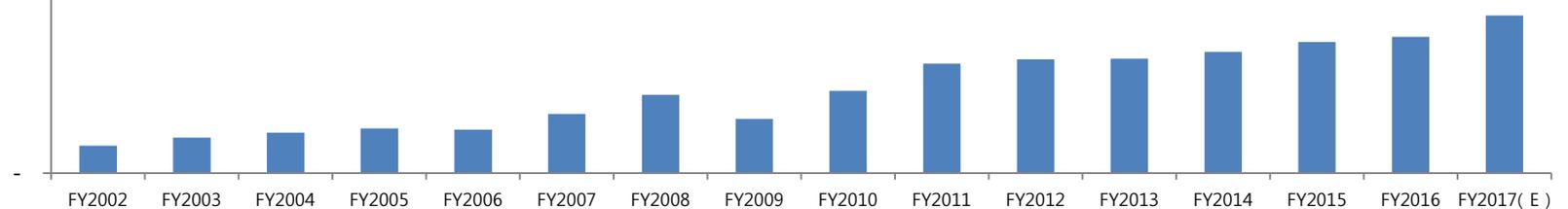
YG-1은 세계금융위기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꾸준한 성장을 하여 왔으며, 최근 몇 년 간 환봉자체생산, 품질향상을 위한 코팅설비투자, 제품믹스 조정 및 신제품 개발 등 질적 성장을 통한 이익개선에 집중하여 왔음



(단위: 억원)

5,0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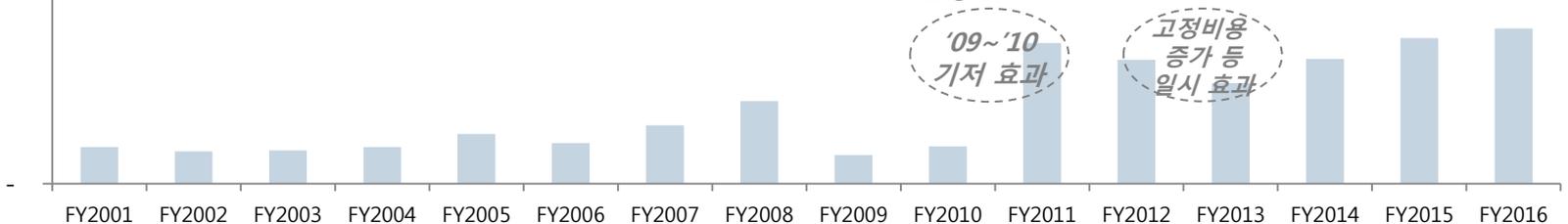
YG-1 매출액 변동



(단위: 억원)

1,000

YG-1 EBITDA 변동



# Company Overview(3)



YG-1 주력제품의 경우 중국 및 국내 경쟁사와는 품질 차이가 큰 편이며, 주로 일본업체들과 경쟁 중임.  
 Solid의 경우 수익성을 감안한 제품 Mix 조정, 품질관련 투자를 통한 고가/세분화로 후발대비 차별화 및 브랜드 가치 향상 전략을 진행 중이며, 충주공장투자를 통해 진행중인 Indexable의 경우 국내외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중임

## 국내외 시장 경쟁 구도

		국내			해외		
		High-end	Mid-range	Low-end	High-end	Mid-range	Low-end
Solid	Milling	 • 제품 / 가격대 대부분 중복 • Tap 제외 시 품질 / 가격대는 유사 • End-Mill 은 YG-1 대비 품질열위 / 저가 • Special Tap 은 YG-1 대비 품질우위 / 고가	 • 후발주자로, Milling 내 저가/틈새품목 주력 • 중국 업체는 성과 부진으로 시장퇴출	 • Solid 는 인수 / 제휴한 업체에서 주로 OEM 생산 • Total Tooling 구축	 • YG-1 대비 동남 아시아시장 우위, 유럽시장 열위	 • 국가별 소수로컬 • 정부지원으로 성장 중이나, 품질/ 고객평판 열위	
	Tapping						
	Drilling						
	기타						
Index-able	Milling	 • Special (고객특화 제품) / 고부가	 • 선도3사가 기술 / CAPA 우위로 과점해왔음. YG-1 본격 진출 개시 • Special 보다는 Standard(표준품) 중심	 • 원천기술 / End-user 직접 영업망의 압도적 우위 • Mid-range 중 상위 가격대까지 Cover	 • 고객 사이에서 가격 / 품질에 대한 평판수준 유사 • Mid-range 에서는 국가별 상위 로컬업체도 경쟁 중		
	Turning	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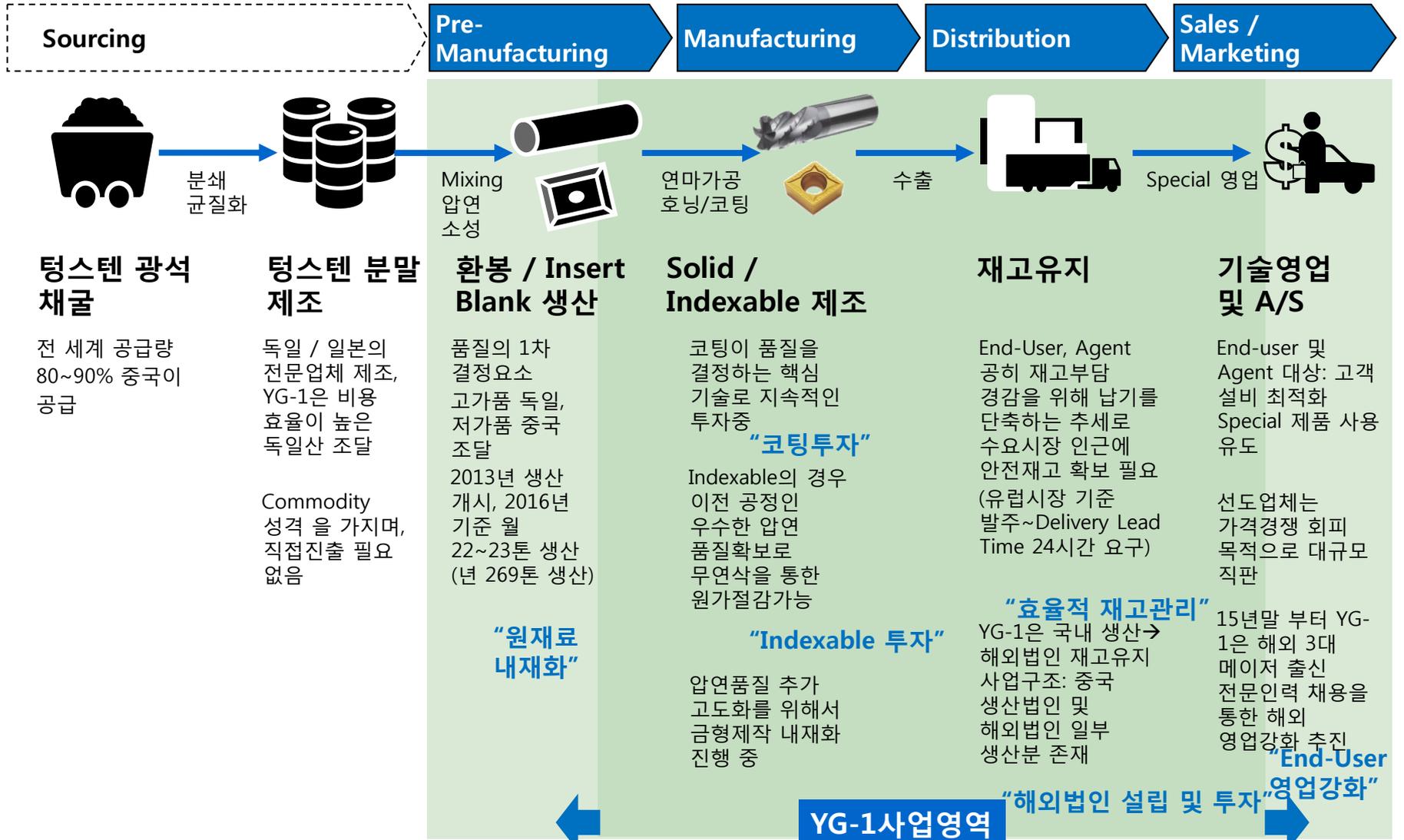
- YG-1 은 국내시장에서는 주로 한국 OSG 와 경쟁
  - Solid: 고가/세분화로 후발업체 대비 차별화
  - Indexable: 후발주자로, 대구텍, 한국야금이 점유한 Standard 시장 위주로 확대 중
  - Indexable Milling에서 현대차 설비업체 등 Special 대량 구매고객을 위한 직접 기술영업망 보강을 통해 End User 영업 강화

- YG-1 은 Solid 에서 일본 업체들과 경쟁
  - 동일 Distributor 내 가격 경쟁이 진행 중이나 YG-1은 공정 현대화 및 코팅투자를 통한 품질차별화 추진 중
- YG-1 은 Indexable 후발주자임
  - 기존 Solid 유통망 활용 가능하며, 최근 들어 고객 해외매출 본격화 중

# Company Overview(4)



YG-1은 텅스텐 환봉을 수입하여 제품생산 후 해외법인을 통해 Agent 에게 수출하는 과거 사업구조에서 Value Chain상 전후방 사업영역 확장 및 Indexable 제조를 통한 수평적 확장을 진행하고 있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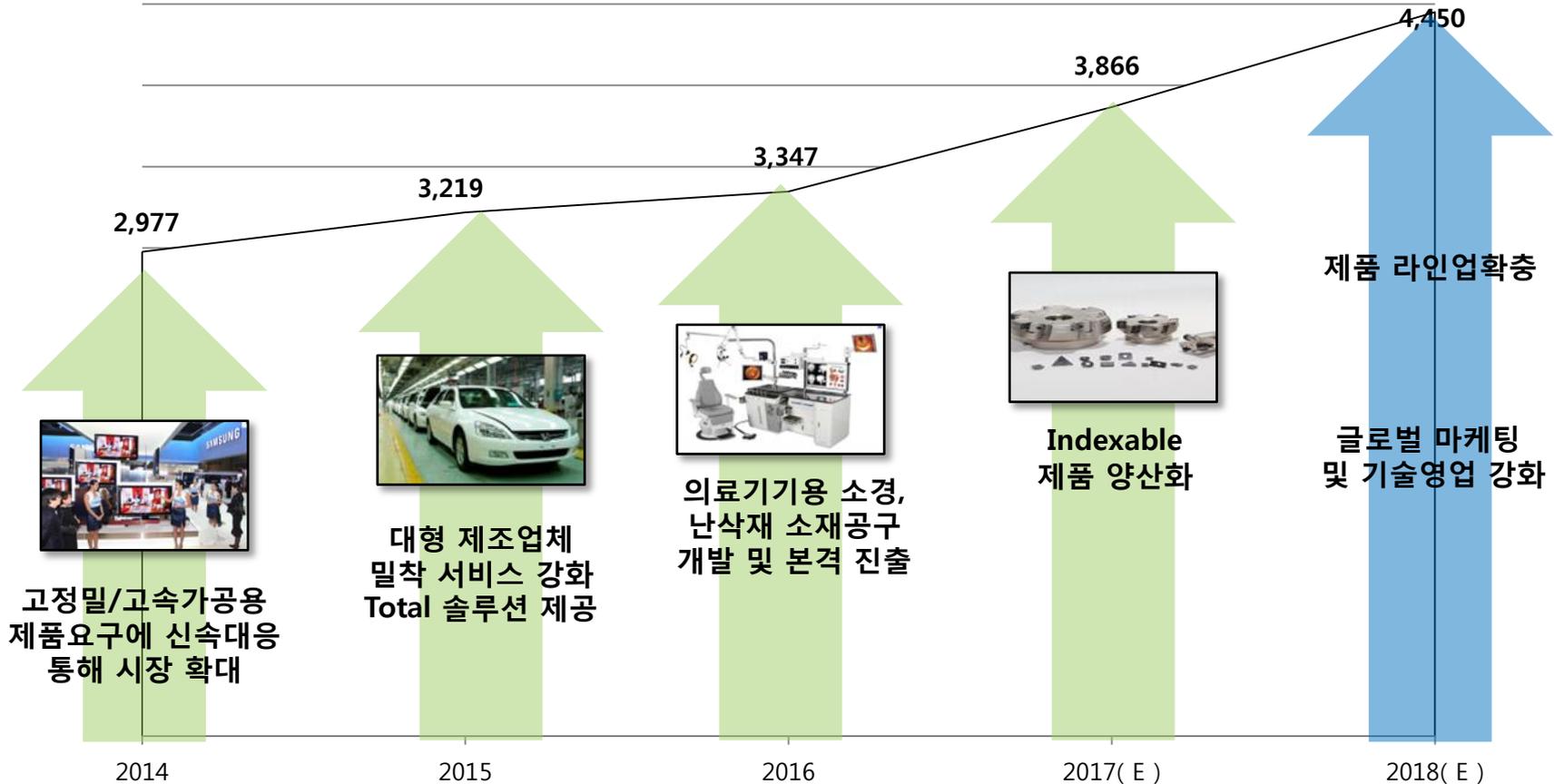
# 2018 실적 예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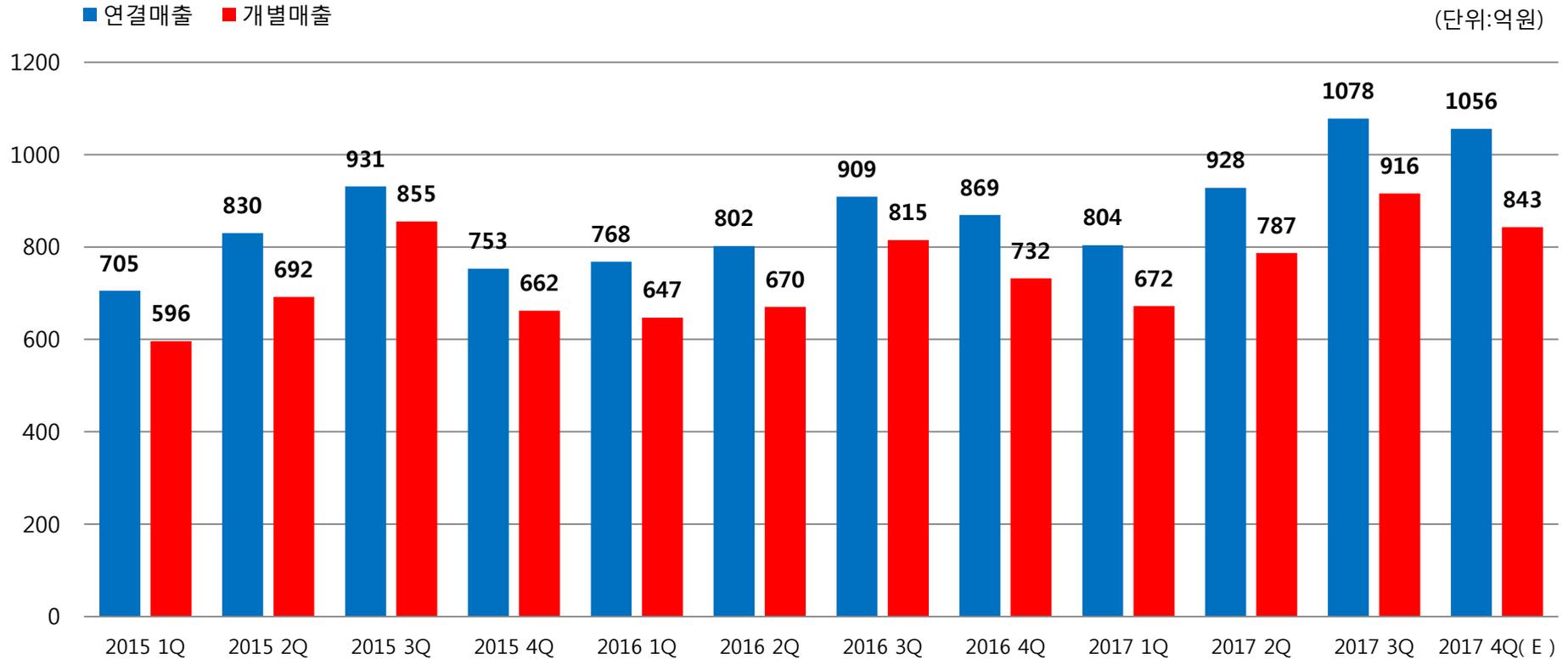
와이지-원은 보다 고부가가치이며 오랜기간 기술개발에 힘썼던 항공분야에 대한 진출 및 Indexable 판매의 본격화에 따라 2018년에는 최소한 매출액 4,450억원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
## FY2018 연결매출 전망

(단위:억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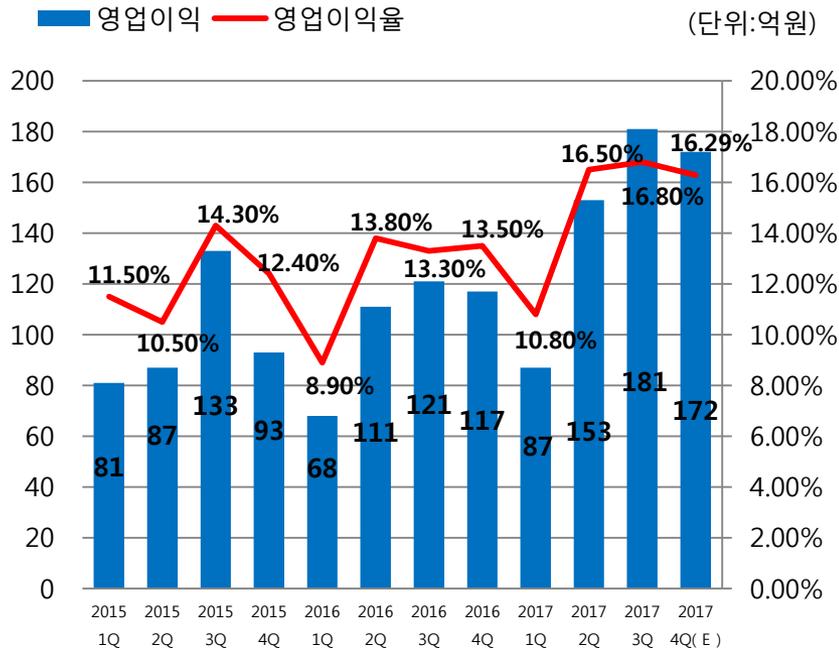
## 1. 분기별 매출



## 2. 분기별 영업이익

- 기존 투자부분의 효율성 증대와 매출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로 영업이익률이 상승함.

- 연결 기준



- 개별 기준

